

# 기업결합심사·수주·임단협... 현대중 '산 넘어 산'

공정거래 한 곳이라도 불허시 무산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달성 불투명  
노사 협상 타결 無·줄다리기 지속

현대중공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외에도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올해 선박 수주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지만 해결이 순탄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결합심사, 일본 찬성 여부 관건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기업결합심사'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 간의 M&A(인수 및 합병)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 곳이라도 인수를 불허하면 매각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는 매머드급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일본의 심사다. 일본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인수에도 불똥이 튀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지난 6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공적 자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한국 조선업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임한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은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위가 (대우조선) 인수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선박 수주 절반 가까이 달성, 100%

## 완료 여부는 미지수

올해 선박 수주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방위사업청과 총 6766억원 규모의 '광개토-III Batch-II 상설설계, 선도합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척 중 첫 번째로,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4년 11월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

해 총 77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연간 수주 목표 159억달러의 48% 가량을 달성했다.

또한 그리스 캐피탈해운과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14척 건조 계약 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 수주까지 따낼 경우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수주 목표치를 완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

## ◆임단협 난항, 연내타결 여부 불투명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1일 제 16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에선 법인분할 투쟁, 하청 노동자 요구안 등을 두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탓에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은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는 오는 11월부터 노조 집행부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때문에 이달 내사

협의 교섭안 제시가 임단협 타결의 관건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에 더해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학자금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인 현대미포조선도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5월31일 상견례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23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867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 $\alpha$ ,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환경이 나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주기 힘들다며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대한항공, 재충전 돕는 단기 휴직제도 시행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  
1회에 한해 추가 3개월 연장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그렇지만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미르숲 음악회', 세대불문 음악 향수 선사

현대모비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현대모비스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에 조성한 친환경 생태숲인 미르숲에서 '2019 미르숲 음악회'를 개최했다.

14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퍼퓸-포레스트 : 향수'라는 콘셉트로 미르숲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세대의 음악적 향수를 선사한다.

현대모비스는 숲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했다. 지난 주말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한 가수 인순이씨와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밴드 몽니의 무대가 진행됐다. 이 공연은 1000여명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주말에는 가수 신효범씨와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팝페라 앙상블 DS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모비스는 음악회 전후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문 숲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거닐면서 미르숲의 아름다운 경관과 숲 속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숲 거닐기' 프로그램,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아로마테라피와 운동, 차 마시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힐링숲피어' 프로그램이다.

미르숲은 현대모비스가 진천군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전 및 복원을 위해 30만평 규모로 조성한 친환경 생태숲이다.

현대모비스의 박병훈 문화지원실장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나와, 가족과 숲의 향기와 음악으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G4렉스텐·티볼리' 등 쌍용차, 캠핑족 주목

### Advertorial Corner

#### '티볼리' 가벼운 캠핑에 안성맞춤 '코란도'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SUV 명가' 쌍용차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다양한 활용성과 안전성, 소형·준중형·대형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9월까지 누적 기준 내수 판매량은 총 7만99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8072대)보다 2.4% 증가했다. 코란도 가솔린 모델과 렉스텐 스포츠 등이 판매를 견인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200억원을 기록했던 캠핑시장은 10년이 지나 1조7000억원대로 대폭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승용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성장세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쌍용차의 모델별로 매력을 분석해봤다.



쌍용차 G4 렉스텐.



쌍용차 티볼리 후측면.

쌍용차의 막내 티볼리는 도심이나 서늘한 캠핑장에서 즐기는 가벼운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 제격이다.

신형 티볼리는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이동하기에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동급 최대 전폭(1810mm)을 기반으로 넉넉한 2열 공간을 확보해 탑승자의 안락함을 극대화했다.

코란도는 가을철 가족 캠핑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코란도 가솔린은 여유로운 1~2열 탑승자 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승차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한다.

특히 1.5L 터보 가솔린엔진은 2016년 4월부터 37개월 정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으로 배기량과 기동성을 줄이면서도 부족한 성능을 보강해 강력한 출력과 높은 연비를 동시에 달성했다. 또 높은 친환경

성을 인정받아 국내 SUV 최초로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와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50~60% 감면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여유로운 '글램핑'을 즐기는 40~50세대는 G4렉스텐을 추천한다. 2020년형 G4 렉스텐은 편안하면서 소음 없는 주행에 적합한 친환경 e-XDi220 LET 디젤엔진과 E-트로닉 벤츠 7단 자동변속기를 결합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차박캠핑'을 즐긴다면 최고의 궁합은 렉스텐 스포츠 브랜드다. '차박캠핑'에는 차에서 잘 수 있는 큰 용량과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퍼포먼스 양쪽이 필요하다. 렉스텐 스포츠 브랜드는 이를 모두 만족하게 해주는 차종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아시아나 '색동크루' 공개... 굿즈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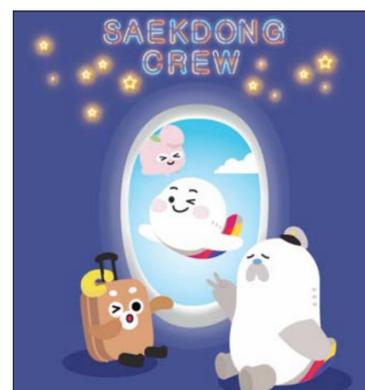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이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색동크루' 캐릭터를 공개하고 이모티콘, 로고상표, 광고, 기내 굿즈 등에 활용한다.

색동크루 캐릭터는 '세계여행을 꿈꾸는 모험가'를 콘셉트로 제작됐다. 색동크루의 '색동'은 아시아나항공기를 귀엽게 형상화한 캐릭터, '두리'는 구름을 모티브로 색동이와 함께 자유롭

게 하늘을 날며 여행하는 캐릭터다.

'지미슨'은 여행 가방을 컨셉으로 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담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식'은 색동이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색동이와는 다른 성격의 캐릭터다.

아시아 '색동크루' 캐릭터는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로고상표, 광고, 기내 굿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색동크루 이미지.